

박준표 “공의 움직임으로 답 찾는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박준표가 ‘움직임’을 쫓고 있다. 박준표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의 투수조 ‘만형’이다. 최고참으로 무게감이 더해진 캠프에서 박준표는 변화를 위한 답을 구하고 있다. 위력적인 커브로 팀의 필승조로 활약을 했었지만 최근 3년간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2020년 손가락 부상 이후 부침의 시간을 보냈던 박준표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박준표는 “컨디션이 안 되는데 좋았을 때만 생각했다. 몸이 안 따라주는 데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찾으려고 했다. 안 좋을 때는 쉬어가기도 해야 했다”며 “조급한 마음으로 안 맞으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들어갔다. 장타를 많이 맞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힘이 들어가고 미묘하게 볼이 들어가기까지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과는 몸도 달라졌다. 그에 맞춰서 하고 있다. 좋았던 걸 찾으려고는 하는데 고집은 안 하려고 한다”며 현재에 맞는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박준표는 이번 캠프에서 무브먼트를 우선 생각하고 있다. 박준표는 “같은 공이 들어가도 더 움직임 있게 해야 하니 공의 움직임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야 안 맞거나, 땅볼이 나온다”며 “이를 위해서 중심이동이 중요하다. 상하체 코임도 중요하다. 지금은 힘이 들어가기나 어깨가 얽히지는 느낌이 있다. 던졌을 때 몸이 안 열리고 왼쪽 어깨를 받아내야 좋은 무브먼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캐치볼 할 때부터 그 부분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표의 주무기인 커브도 세심하게 다듬고 있

다. 캠프 훈련 ‘공의 움직임’에 초점 주무기 커브도 세심하게 다듬어 말 아닌 행동으로 투수 만형 역할

다. 박준표는 “그립을 반대로 바꿨다. 크게 바꾼 것은 아니고 포심에서 반대 포심으로 하고 있다. 여러 시도를 해보니까 그게 더 많이 휘었다”며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왼쪽 어깨를 닫고 하면 커브 회전력도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슬라이드 스텝이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많이 하는 만큼 확실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다. 박준표는 “슬라이드 스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치클락도 도입되고, 주자 있을 때 똑같이 힘 있는 볼을 던지기 위해 필요하다. 주자 있을 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순간에 나가려면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주자 있을 때도 좋은 밸런스로 던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치님이 주자가 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잔상을 남겨두라고 조언해 주셨다. 주자를 눈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주자들이 미리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다. 시야에 뒤야 견제를 하던 발을 뺄 수 있으니까 잔상에 남겨두라고 하셔서 그 부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수 최고참으로 캠프를 하고 있지만 박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준표는 “최고참이라는 생각 안 하려고 한다. 행동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 것 열심히 하고 있다”며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연습밖에 답이 없다. 야구 생각 많이 하고 훈련할 때 신경 써서 집중하고 있다. 코치님이 몸 풀 때부터 쉽게 쉽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열심히 집중해서 좋은 결과 얻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 투수 최고참인 박준표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고 있다.

KIA, 고종욱과 2년 5억원 FA 계약

“좋은 활약으로 팬에 보답”

‘3할 타자’ 고종욱이 내년 시즌에도 KIA 유니폼을 입고 뛴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고종욱과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1억원, 연봉 1억 5000만원, 옵션 1억원 등 총 5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넥센(현 키움)과 SK(현 SSG)에서 활약하면서 ‘호랑이 킬러’로 통했던 고종욱은 지난 2022년 호랑이 굴로 왔다. 2021시즌이 끝난 뒤 SSG에서 방출됐던 그는 마무리캠프에서 테스트를 받은 뒤 KIA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KIA에서 유니폼을 벗겠다”고 새 출발 각오를 밝혔던 고종욱은 2년간의 활약을 바탕으로 KIA 선수로 다시 또 그라운드에 오르게 됐다. 2022시즌 62경기에 나와 114타석을 소화하는 등 대타 자원으로 좋은 활약을 했던 그는 올 시즌에는 부상 고민에 빠졌던 KIA 타선의 한 축을 담당했다. 고종욱은 2023시즌 114경기에 출전해 286타석 80안타 3홈런 39타점, 타율 0.296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특히 득점권에서 0.346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격’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고종욱은 올 시즌까지 1032타석에서 947안타를 기록하며 통산 타율 ‘0.303’을 기록하고 있다. 고종욱은 “KIA에서 기회를 주면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었다. FA라는 기회를 얻었지만 KIA에



고종욱

남고 싶은 마음이 커서 빨리 계약을 했다. 올 시즌 팀의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에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좋은 활약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정환, 중국 렌샤오 꺾고 삼성화재배 바둑 4강

박정환 9단이 중국의 렌샤오 9단을 꺾고 삼성화재배 4강에 선착했다. 박정환은 21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202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8강 첫째 날 경기에서 렌샤오에게 107수 만에 시간승을 거뒀다. 2021년 이 대회 우승자인 박정환은 렌샤오를 상대로 초반 포석에서 앞서며 유리한 형세를 이끌었다. 불리해진 렌샤오는 장고를 거듭하다 일찌감치 초읽기에 몰렸다. 반전을 노리던 렌샤오는 특히 우하귀 백 대마의 사활을 고민하다 착수가 늦어지면서 초시계 버튼을 ‘텐(ten)’ 이후 눌렀다. 결국 초시계에서 ‘타임오버’(time over)라는

기계가음이 들려오면서 시간패를 당하고 말았다. 박정환은 2021년 대회에서도 8강에서 렌샤오를 꺾은 뒤 우승까지 차지했다. 상대 전적은 4승 5패로 아직 박정환이 뒤져 있다. 함께 열린 중국 선수 간의 8강전에서는 쉬자양 9단이 자국 랭킹 1위 구즈하오 9단에게 299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22일 열리는 8강전 둘째 날 대국에서는 신진서 9단과 김명훈 9단이 각각 중국의 셰얼하오 9단과 당하오 9단과 대결한다. “디펜딩 챔피언”인 신진서는 셰얼하오에게 통산 7승 1패로 크게 앞서 있다. 김명훈은 당하오와 1승 1패로 호각이다. /연합뉴스

KIA 김도영 또 수술 ... 재활에 4개월 걸릴 듯

APBC 일본과 결승전서 손가락 인대 파열·골절 부상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또 수술대에 오른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3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이 좌측 엄지 중수지절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견열골절로 인대 봉합술을 받는다. 대회가 끝난 뒤 20일 귀국한 김도영은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CT 및 MRI 검진을 받았고, 엄지손가락 인대 파열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김도영은 22일 같은 병원에서 인대 봉합술을 받을 예정이다. 재활에만 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되는 KIA 스프링캠프 참가 여부도 불투명하다. KIA로서는 아쉬운 두 번째 부상이다. 김도영은 지난 4월 시즌 두 번째 경기만에 부상 병이 됐다. 4월 2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초 중전안타로 출루했던 김도영은 황대인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다가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



김도영

왼쪽 새끼발가락이 골절된 김도영은 핀 고정 수술을 받으면서 긴 재활에 돌입했고, 6월 23일 KT를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참가한 APBC에서 다시 골절상을 입으면서 부상으로 시작한 시즌이 부상으로 마무리됐다. 김도영은 일본과의 결승전이 열렸던 지난 19일, 2-2로 맞선 10회초 연장승부치기 상황에서 유

격수 땅볼을 친 뒤 병실타를 막기 위해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스에 손가락이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고, 결과는 병실타였다. 한국은 김도영의 병실타 뒤 나온 윤동희(롯데)의 적시타로 3-2를 만들었지만, 10회말 일본에 2점을 내주면서 3-4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영입 경쟁 뉴욕 양키스·SF 참여 전망

MLB네트워크 방송 보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손꼽히는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메이저리그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 존 모로시는 21일 MLB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양키스와 자이언츠가 이정후와의 계약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후는 키움 구단의 승낙을 받고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바리그 진출을 타진한다. 이정후를 데려가는 바리그 구단은 계약액의 일정 비율을 키움 구단에 이적료로 준다.

선수 이적을 다루는 MLB트레이드루머스닷컴은 두 구단이 일찌감치 이정후의 스카우트 분석을 진행해 왔기에 놀라운 소식은 아니면서도 이정후는 두 구단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보강을 원하는 포지션의 적임자라고 전했다. 브라이언 캐슈먼 양키스 단장은 오프시즌에 외야수 두 명을 총원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는 좌타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견수와 우익수로 출전할 수 있는 우투좌타 이정후가 양키스 입맛에 맞는 선수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오프시즌 최대 과제로 운동 능력이 좋은 외야수 영입을 꼽았다. 피트 페렐러 샌프란시스코 단장은 지난달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이정후의 활약상을 직접 보



이정후

기도했다. 두 구단이 이정후 영입전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가운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애틀 매리너스, 워싱턴 내셔널스, 캔자스 시티 로열스 등도 관심을 보이는 구단으로 거론됐다. 시애틀, 워싱턴, 캔자스시타는 타격 실력을 갖춘 외야수를 물색하는 구단이다. MLB 구단들은 이정후의 젊은 나이, 콘택트 기술, 스트라이크존 인식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 언론은 장기 계약으로 이정후가 6천만~9천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연합뉴스